

건설경제신문 창간 54주년을 축하합니다.

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
건설업계가
고용창출과 경제활력으로
함께 열어 가겠습니다.



CAK 대한건설협회

회장 유 주 현

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

회장 허 승

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

회장 정 현 태

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

회장 조 종 수

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

회장 이 덕 인

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

회장 이 권 수

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

회장 정 성 욱

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

회장 김 임 식

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

회장 하 용 환

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

회장 오 인 철

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

회장 윤 현 우

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 세종시회

회장 박 해 상

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

회장 정 대 영

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

회장 김 영 구

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

회장 배 인 호

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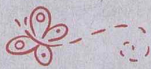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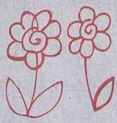
회장 김 상 수

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

회장 이 시 복

건설경제신문 창간 54주년을 축하합니다.

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입니다



꽃과 나비



휴과 농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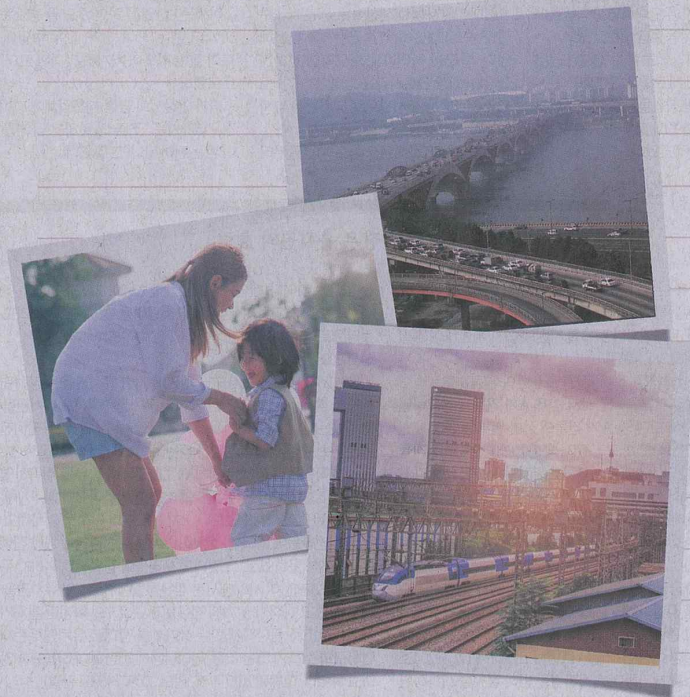


건설투자과 일자리



적정공사비와 국민안전

그리고
건설산업과 국민행복



건설이 곧 “복지”입니다

건설이 곧 “일자리”입니다

건설이 국민의 “생명”과 “안전”을 지킵니다

건설이 침체된 “국가경제”를 살립니다

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과

국민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진정한 복지입니다